



2020년도
제 9호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1 체육시민연대 성명서

대한체육회는 즉각 정관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2 체육시민연대

체육회 정관 반대...문체부에
공문 발송 예정



3 대한체육회

공정성 논란 속에서도
정관개정 '만장일치' 통과



4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체육 관련 정책 비교



5 체육계 이모저모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체육
진흥과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체육시민연대 성명서]

대한체육회는 즉각 정관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체육시민연대를 비롯한 스포츠문화연구소, 스포츠포럼실천 등 체육시민사회는 지난 2월 20일 대한체육회의 정관개정 변경시도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그 당시 요구사항의 핵심은 올해 12월 예정인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한 가운데 치러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를 위해 체육시민연대는 부정선거 감시 및 공정선거 실천을 위한 감시인단의 발족을 제안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신음하는 가운데 또 다시 4월 10일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어 회장 선출과 관련한 정관개정을 심의하려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 29조 '회장의 선출' 조항은 '회장을 포함한 인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제 53조에서 공무원,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이 공직선거에 나서게 될 시 90일 전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 즉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금지하기 위함이다. 설사 정관개정이 여러 이유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한 정관의 개정은 선거를 앞둔 시기에 하기보다 다음 임기 초반에 하면 될 일이다.

4천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대한체육회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체육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국민은 대한체육회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민주적으로 대한민국의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길 기대하고 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를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왜 선거관련 정관을 '회장직 사임'에서 '직무 정지'로 개정하려 하는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 및 행사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는 물론 집합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마당에 수많은 대의원들을 한데 모아 놓고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이러한 발상은 이기흥 회장 개인의 IOC 위원 자격 유지와 차기 회장 연임을 위한 사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대한체육회의 꿈수를 넘어서 스포츠를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에 체육시민연대를 비롯한 체육시민사회는 내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 침묵시위로 정관개정 시도에 항의하고자 한다.

대한체육회는 정관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정관개정 승인을 즉각 중단하라!

2020.4.9.

체육시민연대·스포츠포럼실천



체육시민연대 “체육회 정관 개정반대 ...문체부에 공문 발송 예정”

체육시민연대가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안 통과에 대해 반발했다.

체육시민연대는 10일 2020년도 대한체육회 정기대의원 총회가 열린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 회의장 앞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체육시민연대 허정훈 공동대표(중앙대 교수)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변경과 관련해 "정관개정은 문체부 승인 사항인 만큼 문체부에 승인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도 이기흥 회장의 문제점을 포함한 내용을 서면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만약 문체부 승인까지 난다면 향후 회장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공정선거인단을 발족해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스포츠포럼실천·스포츠문화연구소·체육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지난 2월 20일에도 회장 연임을 위한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선거 90일 전 '사직' 대신 '직무 정지'로 바꾸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ace0912@co.kr



CBS노컷뉴스
박기목 기자

자료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325859>

대한체육회 선거 정관 변경, 공정성 논란

[앵커]

대한체육회가 회장 선출 관련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회장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KBS

이준희 기자

[리포트]

체육 시민 단체의 침묵시위 속, 대한체육회의 대의원 총회가 열렸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총회에서 회장 선출 시 임기 만료 90일 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을 '직무 정지'로 변경했습니다.
무보수-명예직인 대한체육회장에게 공직선거법의 '90일 전 사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통합체육회 출범 당시, 대한체육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공직선거법'이라는 강력한 규정을 스스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4년도 안 돼 이를 뒤집은 겁니다.

[허정훈/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 "갑작스러운 정관 개정은 연임을 위한 꼼수고,
대한체육회를 사유화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회장 선거까지는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정관
변경을 추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기흥/대한체육회장 :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2017년부터
회장직을 시작했다고 봐야 하는데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 한가하게
이것을(정관 변경)할 시간이 없었어요."]

직무정지시 이기흥 회장은 IOC위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체육회장 선거를
치를수 있어 과도한 현직 프리미엄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거 관련 TF 팀을 구성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개정된 안건은 문체부의 허가를 받아야 정관 변경이 최종적으로
이뤄집니다.

fcjune@kbs.co.kr

자료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2534>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체육 관련 정책 비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의 10대 정책을 3월 18일에 공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정당별 체육 관련 정책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 정당은 20대 국회에서 5석 이상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으로 한정하였다. 비례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은 제외되었다.

정당	체육 관련 공약
더불어민주당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AR·VR스포츠 체험관 조성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 지속 확충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확대 은퇴선수 협동조합 창업지원 등 전문 체육인 복지 강화
미래통합당	어르신 건강스포츠 이용권 신설 생존수영 교육 강화 은퇴선수 지원을 통한 스포츠 지도자 양성 체육 국가대표 지원 현실화 스포츠 종목 실업팀 발전 체육 꿈나무 해외국비유학 지원
민생당	전국 100명 이상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가상현실(VR) 체육관 보급(양궁, 축구, 농구, 볼링, 산악자전거 등 20여 가지의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 구성)
정의당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시설 지역격차 해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체육인 인권증진 및 부정부패 방지 선수 이사제 도입, 선수 노조 산별화, 체육 부정부패 및 비리 감독관 무상재활병원(모든 체육인과 장애인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재활병원)

[체육계 이모저모]



온라인 체육수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 '체육수업-inside' 운영.
온라인 환경에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체육교과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나 집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육교과 <건강,도전,경쟁,안전>등 영역별 영상 400여 건과 학생주도형 수업자료 20여건 탑재.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체육 사업 중단 및 시설 휴관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온라인 체육강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함.
영상 제작에는 세종시체육회, 세종시장장애인체육회 소속 스포츠종목별 생활체육지도자가 참여해 운동 자세, 스트레칭, 근력운동 등을 제공.



남학생에 비해 신체활동 시간과 운동량이 부족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기회 확대 방안 마련.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에 여학생 종목을 5종목 이상 운영하도록 권장.
음악줄넘기, 넷볼, 플로어볼, 요가, 댄스스포츠, 치어리딩, 방송댄스 등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운영하여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2020년도 전문, 생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을 재차 연기함.
6월 20일(토)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건강운동관리사 자격검정 일정도 연기하였으며 추후 일정을 공지할 예정.